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4주일

2021. 09. 12. (나해) 제2285호

대구주보



+ Bernard
가
나
다

고산성당
에서
2021. 7. 26

고산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이사 50,5-9L **화답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2독서** 야고 2,14-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8,27-35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노원본당 주임 | 문종배 베네딕도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신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만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마다 주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르 8,34)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참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족들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과 불편함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론 주님과 교회마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는 아픔과 시련을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나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남이 나를 모함하고 욕하고 화나게 해도 인내로써 참고, 오히려 이해와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줄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제인 저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짊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쓰러졌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한 번에 짊어진 십자가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실 때 세 번이나 넘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하겠지요. 더 많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을 믿고 힘을 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마지막에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입을 옷이 없네”

교구 문화홍보국

“오늘 날씨는 어때?” “뭘 입지?” 아침마다 옷장 문을 열고선 또 한탄을 하고 맙니다. “입을 옷이 없네!”

꽤 찬 옷장이 머쓱할 만큼 많은 옷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고 싶은, 마음에 드는 옷은 없다는 뜻이겠지요. 싸니까, 예쁘니까 입지도 않을 옷을 사고, 설령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몇 번 입고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옷을 구매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에겐 패스트푸드에 이어 패스트패션까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 5위의 헌 옷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7억 벌의 옷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한 시장에는 매주 1,500만 벌의 중고 옷이 들어오지만 절반 가까이는 팔리지 않고 버려지는데, 폐기물처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 강에 버려지거나 불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생산되고 빠르게 버려지는 패스트패션 의류는 오늘날 석유산업 다음으로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류산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120억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10% 수준입니다. 물 사용과 오염도 심각합니다. 먼 티셔츠 한 장을 만들기 위한 염색 과정에 2,700리터의 물이 쓰입니다. 한 사람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전체 산업용 폐수의 20%가 바로 의류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는 그릇된 생활양식을 낳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삼으면 당장의 유익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되어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양한 태도들이 서로를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환경과 사회의 부패를 낳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쓰고 버리는 논리에서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려는 무절제한 욕망 때문에 쓰레기가 양산됩니다. (『찬미받으소서』 122~123항)

온라인 기술의 발달로 옷을 구입하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이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는 이른바 ‘소비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등장하고 가상현실을 통해 옷을 입어보고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패션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가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잉생산도 문제지만 과잉소비도 문제입니다.

옷 하나를 고르거나 버릴 때는, 그리고 버릴 때 드는 기회비용, 수지 타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곧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정말 필요한 옷이 아니라면 충동적으로 사는 것은 줄이고 옷을 최대한 아껴 입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대신한 ‘최저가’가 아니라 오래 두고 쓸 물건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려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필름**

“적게 사고, 잘 골라서, 오래 입자. (Buy Less, Choose Well, Make It Last.)” – 비비안 웨스트 우드

❖ 교황 “백신접종은 사랑의 몸짓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남미 신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간단하지만 심오한 몸짓인 백신접종에 동참하라고 당부했다. 북미와 중남미의 여러 주교들도 목소리를 모아 한 인류 가족인 우리 모두가 공동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2021년 8월 18일 바티칸 뉴스

❖ 교황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기심 없이 책임감을 갖고 다시 시작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서명한 메시지를 통해 8월 20일부터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열리는 가톨릭 평신도 연례행사 ‘리미니 미팅’의 참가자들에게 강박을 보냈다. “사회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원과 수단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이기심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사람, 자신의 삶과 소통하면서 믿을 수 있는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바티칸 뉴스

❖ 교황 “한반도에서 평화의 선한 장인이 되십시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낭독됐다. 성 김대건 신부는 지난 1846년 순교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다. 미사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 베드로 사도좌’ 제대에서 거행됐으며,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주례했다.

2021년 8월 21일 바티칸 뉴스

❖ 교황 “지구의 심각한 위기에 맞서 공동의 집을 위해 일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1일 수요일 일반알현에서 ‘창조 시기’의 개막을 알리고, 며칠 내로 동방 정교회 바르톨로메오 1세 세계 총대주교와 영국 성공회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와 공동으로 작성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바오로 6세 홀에는 ‘찬미받으소서 운동(LSM)’ 대표단이 참석해 2021년 창조 시기의 상징인 ‘아브라함의 장막’ 축소모형을 교황에게 선물했다.

2021년 9월 1일 바티칸 뉴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홍인 레오의 집안은 본래 한양의 이름 있는 집안이었으나, 그의 부친이 경기도 포천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장하였다. 1801년 한양에서 순교한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바로 그의 부친이다. 레오의 가족이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은 1791년경 그의 부친이 양근 땅에 살던 고종 사촌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로부터 교리를 배우면서였다. 이후 레오는 부친에게서 교리를 배웠는데, 오히려 부친보다 먼저 천주교 신앙을 진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천주교에 입교한 뒤 레오는 세속의 꿈을 모두 버리고 하느님을 섬기고 교리를 전하는 데만 열중하였다. 그러면서 효성을 다하는 길은 부친을 신앙으로 이끄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는 부친의 의심을 풀어드리고, 입교를 망설이는 부친을 설득하여 마침내 신앙으로 이끄는 데 성공하였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레오는 부친과 함께 주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서(庶) 5촌 당숙인 홍익만 안토니오, 황사영 알렉시오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또 부친과 같이 포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홍인 레오는 부친과 의논하여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책 상자를 받아 집안에 숨겨두었다. 그런데 한 신자가 이 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체포되면서 그들 부자의 이름이 박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 무렵 레오와 부친은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었다. 그러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포졸들이 쳐들어와 그들 부자를 체포하였다. 이후 부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한양으로, 레오는 포천으로 각각 압송되었다. 이윽고 레오는 포천에서 첫 번째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밀고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킨 뒤, 경기 감영을 거쳐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그에 앞서 레오의 부친은 한양으로 압송된 지 얼마 안되어 형벌을 받고 순교하였다. 레오도 그 뒤를 이어 포도청과 형조에서의 문초를 신앙으로 극복하였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고향 포천으로 이송되어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4세였다. 형조에서 그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인 레오
(1758~ 1802년)

“너는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오랫동안 이를 믿어왔다. 너의 아버지가 교리를 가르치고 너는 이를 배웠으며, 깊이 여기에 빠져 (교리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경기 감영에서 포도청으로 이송되었다. … 네가 저지른 죄의 실상을 보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4. 예수님 바라보기 : 가정의 소명 ④

혼인과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통하여 받아 하느님 사랑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혼인성사는 사회적 관습이나 의미 없는 예식, 또는 단순히 약속의 외적 표징이 아닙니다. 혼인성사는 부부의 성화와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들의 상호 유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자체에 대한 성사적 표징이고 진정한 표현입니다. ... 그들은 서로에게나 자녀들에게 구원의 증인이 되고, 성사는 그들을 구원의 참여자로 만듭니다.” 혼인은 성소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인 부부 사랑을 실천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쁨』, 71~72항)



DCU

DAEGU CATHOLIC
UNIVERSITY

수시모집 9.10(금) ~ 9.14(화)

미래 100년 새로운 창학



대구가톨릭대학교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에코백 사용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35호 정답

1. 9 2. 시몬, 평온, 행복, 야포, 경계, 가자라, 성채 3. 키레네의 야손 4. “하늘로부터 별을 받았던 너는 이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려라.”

37호(9월 19일)부터 '시서와 지혜서'가 시작됩니다! 중단하신 분들도 다시 시작합시다!



미사 안내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3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14일(화) 11:30 계산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13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8일(토) 11: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9월 18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9.18(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살레시오수도회 성소 상담

대상: 고3, 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교육 | 모집 | 기타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영성 강좌

일시: 10.13~11.17 매주 수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힘,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수강료: 8만원 / 문의: 283-9898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대상: 만 53세 이하의 가톨릭 신자
마감: 10.2(토)

문의: (010)3440-0304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2년도 수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상담심리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기간: 9.10(금)~14(화)

내용: 간호학과/사회복지/상담심리

문의: (043)270-0100~0102

ENTS(영어성경) on ZOOM(ents.or.kr)

일시: 9.28~11.30(매주 화) 19:00

주제: 복음서 속 여성들과의 만남

강사: 안 페트리 신부 / 수강료: 3만원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53-0613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코로나로 힘든시기, 보다 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비대면 ME 주말에 초대합니다~!

시간: 금요일 오후 8시 ~ 주일 오후 5시

장소: 각 가정 (온라인 ZOOM 이용)

대상: 부부(결혼 3년이상, 종교무관), 성직자, 수도자

신청: 대구ME협의회, 053)983-0521



- 382차: 10. 1(금) ~ 3(일)
- 383차: 10.29(금) ~ 31(일)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리스토리결혼정보

대구신문 칼럼 연재중 | 리스토리TV 유튜브 진행
'결혼하는 비밀' 출간, 방송 언론 다수 출연
23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진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과교수)

안과전문의 서 재 신 (베드로) · 장 주 현 (비바인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T타워 4~6층
☎ 053) 626-8881~5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윤영하 성형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하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노약망(요한) 신부
1902년 9월 13일
- 황용식(타대오) 신부
2020년 9월 18일

행사 | 모임

9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9.26(일) 14:00

장소: 남산동 신학교

대상: 중1~대학·일반

효성여고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인성제: 10.5(화)

학술제: 10.6(수)

기념미사: 10.7(목)

문의: 235-7004 / 235-6937

동문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 | 모임

파스카 청년성서 팀공부 모집

성경 공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내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대상: 청년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32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입학 및 개강: 10.18(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비용: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2018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직원 채용

내용: 주교회의 및 전교기구 직원 0명

분야: 사무, 노무(조라·경비), 전교기구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 참조

마감: 10.29(금) 14:00

문의: mano@cbck.kr / pmsk@pmsk.net

군위묘원 추석연휴_일방통행 안내

추석 당일에는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
후해서 성묘를 하여 주시고, 성묘 후
귀가 시, 일방통행 도로를 반드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12.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
서는 묘원 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분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구청 관리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http://www.tcmccch.co.kr>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09:00~17:30)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사 10대이상 완비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특화진료
· 정형외과
· 심장내과
· 건강진단
· 고양이특화
· 야간응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강성동 280-5 (이마트 강성동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박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박재혁(발렌티노)
前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뜸·부항기
주열가·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기·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두원(아오싱), 백상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백상원(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